

향/장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미세먼지 걱정없는 뷰티 생활 백서
화사한 얼굴을 위한 스프링 뷰티 아이템
아이처럼 꿀잠자는 법

MARCH 2020 VOL.617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3년간 617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0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02 NEWS-ISSUE 설화수의 스프링 컬렉션 | 28 MAKEUP PLAY 팔레트 200% 활용법 |
| 04 NEWS-PRODUCT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안심 치약 | 32 PRODUCT 리리코스 |
| 06 NEWS-TREND 유리처럼 투명한 릿 립 | 34 PRODUCT 바이탈뷰티 |
| 08 MAKEUP 헤라 스프링 컬렉션 메이크업 | 36 PRODUCT 아모레퍼시픽 |
| 14 SPECIAL 도시 뷰티 생활 백서 | 38 REVIEW 파운데이션 집중 비교 분석 |
| 22 PRODUCT 꽃처럼 화사한 얼굴을 위하여 | 40 REVIEW 믿고 보는 품평단의 생생 후기 |
| | 42 INGREDIENT 좋은 시카는 따로 있다 |

발행일 2020년 3월 1일 발행 통권 617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제작 문의 이기태 제품 문의 080-023-5454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나누리 디자인 펜타그램(Pentagram)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슬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SPRING INTO
HAPPINESS



LIMITED
EDITION



자수로 표현한 한국의 아름다움

설화수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봄을 맞아, 보다 특별한 패키지로 갈아입었다.



2020 설화수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을 만나보자.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직물이나 도자기, 공예품에 희망과 기쁨을 의미하는 문양을 담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상서로운 기운이 깃든다고 믿었다. 설화수는 매 시즌 예술 작가들과 협업해 한국의 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한 리미티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더욱 특별하게 해외 아트 스튜디오 Antoinette Poisson과 협업하여 길상의 의미를 담은 한국 전통문양 중 꽃(매화), 나비, 새를 재해석한 아름다운 한정판 라인을 공개했다. 2020 설화수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을 함께 작업한 Antoinette Poisson은 줄리 스트로디야오, 뱅상 파블레, 장 밥티스트 마르탱 3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된 파리의 디자인 스튜디오로, 18세기 프랑스 장식미술의 중요한 유산인 도미노 벽지를 복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브릭, 벽지 등의 패턴을 디자인하고 있다. 조선시대 작품인 서화미술회 10인 합작도 10폭 병풍과 호접도 10폭 병풍에서 영감을 받아 진행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AHN JIN HO

한 이번 컬렉션은 모든 오브제의 형상과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면서 조선시대 전통 지류와 원단을 그대로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섬세함과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금사와 은사가 섞인 베이지 컬러 트윈드 원단에 매화와 나비 자수가 어우러져 마치 실로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계승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의지와 철학까지 고스란히 담았다.

이번 리미티드 컬렉션은 설화수의 베스트셀러인 퍼펙팅 쿠션과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에센셜 립 세럼 등 외출할 때 늘 휴대하는 제품들로 구성했다. 특히 퍼펙팅 쿠션과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은 섬세한 자수의 질감을 손으로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해 한층 더 고급스러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봄의 전령 매화와 나비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놓은 설화수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과 함께라면 향기롭고 행복한 봄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10**

잇몸 건강을 책임지는 명품 치약

평범한 치약이 아니다. 대한민국 약전소금과

10가지 한방 추출물을 함유한



잇몸 출혈 개선 효과자율

78%

치은염 개선 효과자율

92%

*시험 기간 2018년 10월 1일
~ 2019년 1월 31일
시험 대상 56명
시험 기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동의본초연구 한방 생약 잇몸치약
순도 99% 대한민국 약전소금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치약.
100g, 7천원.

본초생약™을 더해 효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잇몸 치약 동의본초연구를 주목하라.

평상시 구취가 나거나 양치를 할 때 불편한 통증이나 이가 시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잇몸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체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구강 관리를 위한 제품으로 가글이나 치실 등이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치약이다. 잇몸과 치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고급 성분을 담은 등 치약의 프리미엄화는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됐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치약의 대표 주자인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은 2014년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2020년 새롭게 선보이는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은 패키지 디자인부터 모던하고 세련되게 바뀌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다.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의 주성분은 바로 소금. <동의보감>에 소금으로 양치하면 치통을 덜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소금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치아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자연 성분으로 알

려져 있다.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은 균일한 입자를 지니고, 불순물을 걸러낸 순도 99%의 고순도 대한민국 약전소금을 담아 치아 손상을 줄이면서 잇몸을 케어해준다. 또한 고품질 소금을 안정적으로 제형화하는 아모레퍼시픽의 SALTOX™ 기술을 적용해 잇몸 건강에 탁월한 소금을 국내 유일 20% 함유하였고(*2020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등록 기준, 갈근·감초·녹차·당귀 등 기존 성분에는 은행잎 추출물과 홍삼,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을 추가한 10가지 한방 추출물인 본초생약™을 담았다.

그 결과, 잇몸 출혈과 염증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가 시린 증상이나 구취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양치 후 개운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고 잇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이상적인 치약, 프리미엄 잇몸 치약 동의본초연구와 함께하면 이와 잇몸 건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D**

EDITOR: AHN SAE ROM



GIAMBATTISTA VALLI



BURBERRY



CHL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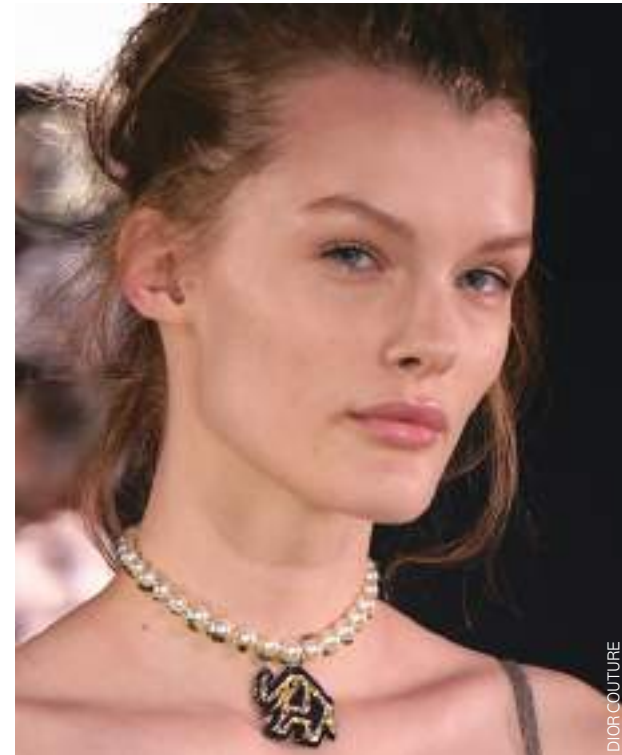
유리처럼 투명한 입술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립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밤 타입 립스틱과 립글로스로 자연스럽게 생기 넘치는 스프링 메이크업에 도전해보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관제리, 5g,
3만5천원.



DIOR CO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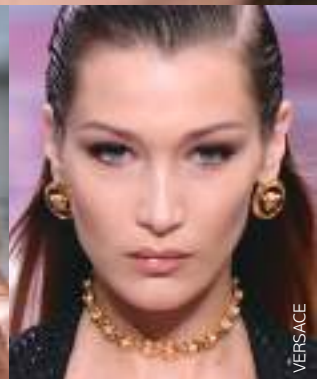
SPYDER



LOUIS VUITTON



CHANEL



VERSACE

단정한 셔츠, 날렵한 시가렛 팬츠에 스니커즈 등 베이직한 아이템을 적절하게 매치하는 스타일링이 바로 2020년 버전의 모던 시크. 뷰티도 마찬가지다. 세련미에 목마른 우리에게 화답하듯 2020 S/S 뷰티 트렌드는 자연스럽게 싱그럽다.

2020년 글로우 트렌드는 입체적이고 고급스러운 광택에 중점을 두는 듀이 스킨과 함께 유리알처럼 반짝이는 광택을 발산하는 입술에 주목한다. 웻 립, 일명 글라스 립이라 불리는 물에 살짝 젖은 듯 맑고 촉촉한 입술이다. 단, 무겁고 끈적한 질감의 글로시 립이 아니라 본연의 혈색을 살린 듯 자연스러운 색과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을 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즌 런웨이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웻 립 메이크업을 볼 수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루치아 피카는

주근깨가 드러나는 말간 피부와 딸기를 베어 문 듯한 입술로 소녀 같은 경쾌한 무드를 연출했고 보테가 베네타, 끌로에, 지아바티스타 발리의 모델들은 그을린 듯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와 코럴 계열의 글라스 립으로 등장했다. 저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팻 맥그래스는 촉촉한 립스틱을 베이스로 바른 뒤 투명한 립글로스를 덧발라 유리알 광택을 입은 입술을 선보이며 강렬한 레드 컬러로도 웻 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초보자라면 촉촉한 밤 타입 립스틱이나 크림처럼 부드럽고 끈적이지 않는 제형의 코럴, 브릭 컬러 립글로스로 마치 거울을 보지 않고 쓱쓱 바른 듯 자연스럽게 연출해볼 것. 올봄엔 굳이 풀 메이크업을 할 이유가 없다. 물을 머금은 듯 맑고 투명한 웻 립으로 생기 넘치는 메이크업을 하면 충분하다. **LD**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레인보우 일루전

서울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다채로운 컬러로 몽환적인 무드를 담아낸 헤라의 S/S 컬렉션 '레인보우 일루전'.

메이크업 팔레트와 2가지 립 컬러로 완성한 봄을 위한 트렌드 룩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KIM HEE JUNE(인물), AHN JIN HO(제품)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레인보우 일루전 멀티 팔레트

10가지 컬러, 47가지 제형으로 구성되어 아이베이스부터 섀도&치크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메이크업 팔레트. 다양한 색깔을 지닌 서울의 현재 모습을 담아 자연스러운 채도와 광으로 표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10구x1, 10g, 8만원.

헤라 레인보우 일루전 스파이시 누드 밤 #에씨드 핑크/#애플 코랄

유리알 같은 광택을 지닌 도톰한 입술을 위한 스파이시 누드 밤의 새로운 컬러. 청순한 색상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탐스러운 입술을 완성해준다. 각각 3.5g, 3만5천원.

#PURPLE BLUSHER

만개한 벚꽃처럼 눈부시고 사랑스러운 블러셔 룩. 팔레트 중 별문 퍼플 컬러를 광대뼈 앞쪽에 넓게 바르고, 실루엣 컬러를 광대뼈 아래쪽에 바른 뒤 그라데이션해 얼굴을 수채화 같은 보랏빛으로 물들인다.



#SPARKLING EYES

은은한 메이크업에 화려함을 더하는 간단한 방법은 펠이든 아이섀도를 활용하는 것. 팔레트 중 은은한 글리터가 든 리플렉션과 데이드림 컬러를 단독으로 혹은 섞어 바르면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 같은 스프링 룩을 연출할 수 있다.



MODEL: SON JAE WON, MAKEUP: JAMIE YOON-JANE PARK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MIX & MATCH

피치 톤의 색도를 눈두덩에 바른 뒤 벌룬 퍼플 컬러를 아랫눈썹 라인에 연하게 발라
그러데이션하면 독특하고 몽환적인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도시 뷰티 백서

이젠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와 맹렬한 기세로 피부를 괴롭히는 봄철 자외선.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사는 도시는 피부 건강에 해로운 요소로 가득하다. 그렇다고
예뻐지기 위해 공해가 덜한 곳으로 떠날 수도 없는 노릇. 아름다운 도시 라이프를 위해
기억해야 할 뷰티 노하우를 모았다.

방어벽을 세우는 스킨케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각각 머리카락 굵기의 1/5~1/7, 1/20~1/30밖에 되지 않을 만큼 작아 코나 입,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우리 몸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온다. 납이나 비소 등 중금속 성분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등 곁으로 드러나는 증상뿐 아니라 기관지염, 천식 등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피부에 달라붙거나 모공 속으로 침투해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트러블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이종희 교수 팀이 초미세먼지가 얼굴의 주름을 악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는 이맘때에는 피부를 수분과 영양으로 가득 채

워 건강하게 만들고 든든한 방어막을 형성해 나쁜 성분이 피부에 달라붙거나 흡수되지 못하게 막아줄 믿음직한 스킨케어 제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4월, 유해 환경과 그로 인한 피부 변화를 연구하고 피부 건강을 지켜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안티폴루션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헤라 에이지 어웨이 모디파이어. 배기가스, 소음 등 표피감각을 자극해 스트레스와 노화를 유발하는 '감각 공해' 이로 인해 거칠어진 피부를 매끄럽게 감싸고 강력한 에너지를 충전해 젊게 가꿔주는 주름 개선 기능성 세럼. 40ml, 11만원.



프리메라 슈퍼 블랙시드 콜드-드랍 크림. 블랙시드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담아 초기 노화를 막고 카멜리아 씨드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 자극에 맞서 피부를 보호하는 얼리 안티에이징 크림. 50ml, 5만8천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플루이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피부 바탕을 건강하게 다지고 끈적이지 않는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안티에이징 플루이드. 160ml, 22만원.



매일, 꼭 써야 하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겨우내 오랜 실내 생활로 약해진 피부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봄 자외선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정석. 얼굴은 물론이고, 주름이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목이나 노화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손에도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 제품에 표기된 만큼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5백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덜어 써야 하는데, 메이크업할 때 밀리거나 하얗게 들뜨는 백탁 현상이 생기는 제품이라면 한 번에 다 바르지 말고 얇게 몇 번 덧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소에는 자외선 차단 정도를 가리키는 SPF 지수가 30 정도인 제품이, 하루 종일 야외에 있을 예정이거나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SPF40 이상인 제품이 알맞다. 2~3시간마다 덧바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므로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다니는 것도 좋다. 자외선 차단제의 유통기한은 보통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이기 때문에 지난해 봄 이전에 개봉한 제품은 과감히 버릴 것. 효과도 없을 뿐더러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리메라 스킨 릴리프 워터프루프 선블록 SPF50+/PA+++.
외부 활동이 많은 날 쓰기 좋은 아웃도어용 스킨크림. 물과 땀에 강해 잘 지워지지 않는다. 70ml, 3만2천원.
설화수 상백크림 No.2 밀키 톤업 SPF50+/PA++++.
자외선이나 초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화사한 톤업 피부를 연출해주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스킨크림 30ml, 6만원, 50ml, 8만5천원.
아이오펜 UV 쉴드 스킨 에너지 선 SPF50+/PA++++.
자외선과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더해준다. 45ml, 3만8천원.
헤라 선 메이트 스틱 SPF50+/PA++++.
모공 프라이머 효과를 겸한 멀티케어 선 스틱. 보습보송하게 발리기 때문에 갖고 다니며 덧바르기에 부담이 없다. 20g, 3만5천원.



미세먼지도 미끄러질 보송 메이크업

달으면 끈이 묻어날 것 같은 윤광 메이크업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봄에는 욕심을 버릴 것. 머리카락도 철썩 붙을 만큼 끈적한 메이크업을 한 얼굴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지 않을 리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 보호막이 하나 줄어드는 셈이니 피부를 감싼다는 생각으로 메이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마무리가 무조건 보송보송해야 한다는 것. 번들거리고 끈적이는 유분 대신 보습 성분이 풍부한 스킨케어로 피부를 충분히 촉촉하게 만든 뒤 매트 피니시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자. 잡티를 가리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면 건조한 봄바람에 갈라지고 쉽게

지워질 수 있으므로 컨실러로 잡티를 가린 뒤 얇게 펴 바르는 편이 좋다. 아이섀도나 블러셔는 파우더 타입이, 립스틱 역시 글로스보다는 매트 텍스처의 제품이나 틴트가 안전하다. 메이크업을 끝낸 뒤 끈적이는 느낌을 없애는 파우더로 얼굴을 가볍게 쓸 어주거나 픽서를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헤라 어반 베일 CC SPF40/PA+++.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모공이나 잔주름에 끼지 않으며 편안하게 밀착해 하루 종일 바르고 있어도 답답하지 않은 CC 크림. 35ml, 5만원.



헤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수분을 40% 함유해 부드럽게 발리고 입술을 촉촉하게 감싸면서도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틴티드 립스틱. #278 캔디 오렌지, 3.5g, 3만5천원.



헤라 메이크업 픽서. 안개처럼 미세하게 분사되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메이크업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픽서. 110ml, 3만2천원.



속까지 건강해지는 라이프스타일

물 많이 마시기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대비 수칙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물 마시기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일조하고 눈물이 잘 흐를 수 있게 도와 눈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혈액 속 수분 함량을 높여 증감속 농도를 희석하고, 소변이나 땀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한다. 건조한 피부에는 오염 물질이 더 잘 침투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수분 섭취는 필수적이다. 한 마디로 물은 미세먼지 잡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미지근한 물을 2L 이상 마셔야 한다.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는 것도 좋다.

제대로 만든 마스크 쓰기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찾게 되지만 제대로 만든 제품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기준이 되는 것은 보건용 마스크에 적용하는 KF 등급. KF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뜻하는데, KF80인 제품이라면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의미이므로 일상적으로 쓰기에 무리가 없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방어력이 우수한 것이 사실이지만 KF94를 넘기면 자칫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증받은 마스크를 선택했다면 올바르게 쓸 차례. 착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양손으로 마스크 날개를 펼친 뒤 양 끝을 눌러 살짝 오므린다. 이후 고정하는 심이 있는 부분을 코에 대고 입까지 완전히 가린 뒤 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지그시 눌러 빈틈없이 밀착시키면 끝. 접어서 보관하거나 세탁하면 필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사용은 금물이다.



동의본초연구 한방생약 잇몸치약. 순도99% 대한민국 약전소금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치약. 100g,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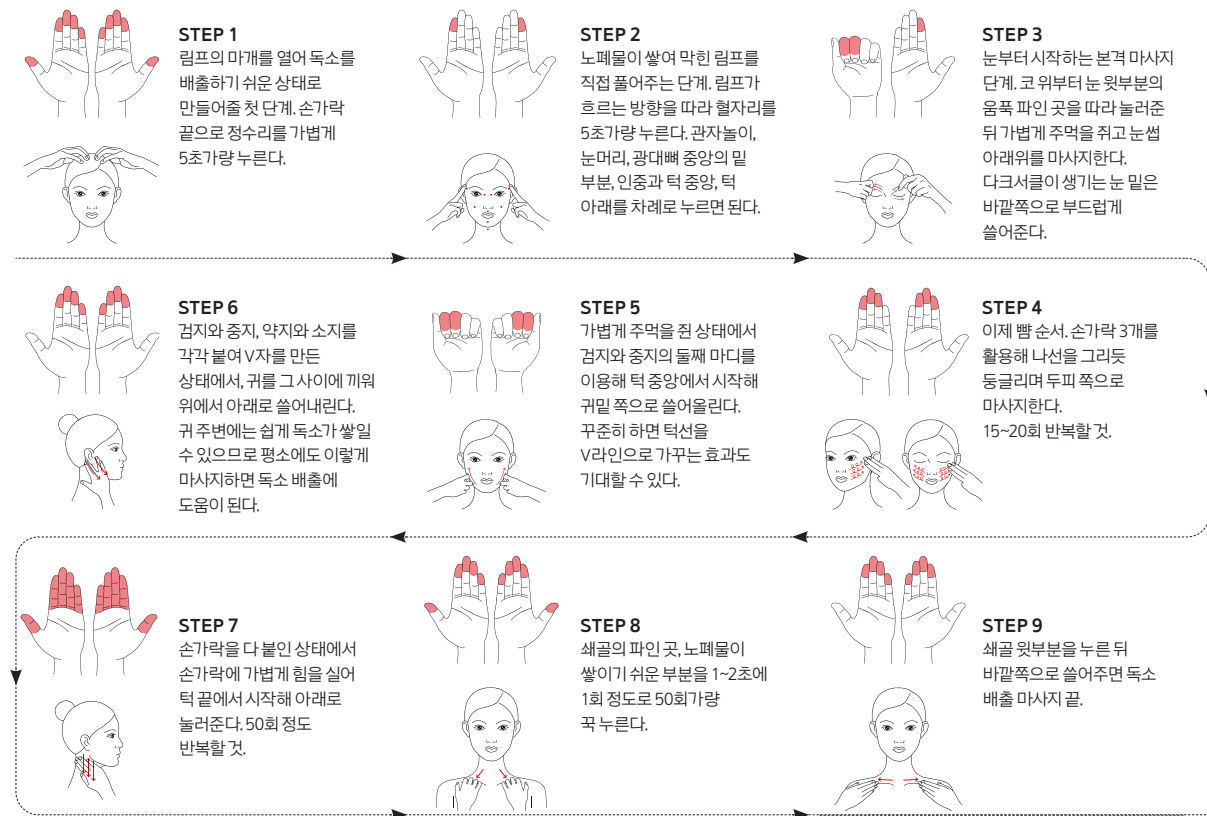
실내 공기 정화하기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하루 중 일 집 안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환기는 필수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실내 공기가 오히려 더 더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에 비해 최대 60배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요리를 하거나 진공청소기를 돌린 뒤라면 창문을 3분 정도 열어두는 것이 좋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씻기 외출했다가 귀가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미세먼지에 노출된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비누로 손가락 사이까지 말끔하게 씻은 뒤 빗질을 해서 모발에 붙은 먼지를 제거하고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양치 후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1/2티스푼을 녹인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것도 좋다. 생리식염수와 전문 세척기를 이용해 콧속을 씻으면 부은 점막이 가라앉고 미세먼지가 잘 배출된다. 눈이 뻑뻑하다면 눈은 그릇에 식염수를 넉넉하게 부은 뒤 얼굴을 담그고 눈을 5~6회 깜빡여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독소 배출을 위한 마사지

하루 중일 건조한 봄바람과 미세먼지에 시달린 피부에는 특별한 휴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는 데 그치지 말고, 지친 피부를 달래는 동시에 피부 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마사지를 함께해보자. 혈행을 개선해 부기를 가라앉히고 스킨케어의 효과까지 높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안색을 환하게 하고 피부를 쫄득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건강한 내일을 기약하는 클렌징

클렌징은 건강한 피부 보호막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클렌저를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먼저다.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졌거나 심하게 건조하다고 느낀다면 크림 혹은 밤 타입 클렌저가 알맞는데, 진동 클렌저와 함께 쓰면 모공 속 오염 물질까지 효

과적으로 씻을 수 있다. 트러블이 생겼거나 세안 후 클렌징할 때 청량한 기분이 들길 원한다면 젤 타입 제품이 제격. 얼굴이 땅기거나 건조해지지 않아 건조성 피부에도 좋다. 메이크업과 함께 건조해 들뜬 각질까지 제거하려면 클렌징 티슈가 좋다. 단, 너무 세게 힘을 주어 닦으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이 필요하다. 모공 속 노폐물과 각질을 함께 없애고 싶다면 효소 타입 클렌저가 좋다. 평소에는 1 단계의 클렌징만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꼭 폼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할 것. 보습과 유효 성분이 많이 든 제품을 고르면 이중 세안을 해도 얼굴이 땅기거나 건조해지지 않는다. **1D**



MODEL: PARK SEO HEE, HAIR: LEE HYE YOUNG, MAKEUP: JO A RUM-PAEK CHANG HOON(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STYLING: PARK MI KYUNG, ILLUSTRATION: KIM YE EUN

구딸 파리스수와 우자메

'오늘 밤이 아니면 영원히 없을'이라는 로맨틱한 이름을 가진 이 향수는 아직 구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향이다. 우연히 발견한 한 성직자의 정원에 핀 장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스수와 우자메는 관능적이고 신비로운 로즈 향이 매력적이다.

꽃 피는 봄이 오면

꽃처럼 화사한 당신으로 만들어줄 6가지 제품.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CHOI HYANG JIN



"지나치게 여성스럽지도, 중성적이지도 않은 로즈 향이라 1년 내내 뿌리기 좋지만, 봄과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린다. 뿌리는 순간 비밀스러운 정원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는 향수."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성진

#장미정원
#터키로즈
#비밀스러운향

구딸 파리스수와 우자메.
30ml, 11만8천원.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435호 팜파스

지난 가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자마자 매진 행진을 벌이며 '대란템'으로 등극한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435 팜파스를 소개한다. 입술의 각질과 주름을 매끈하게 정돈하는 동시에 파우더리하면서도 속은 촉촉해 '겉뽕속촉' 립 제품으로 극찬받은 텍스처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MLBB 컬러가 인기의 비결.

"어떤 옷, 어떤 메이크업에도 맞춘 듯 어울려 매일 바르기 좋은 립스틱이다. 이 립스틱을 바르면 무슨 립스틱을 발랐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는데, 정식으로 재발매되어 반갑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인생립스틱
#대란템
#팜파스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435 팜파스, 5g, 3만5천원.
(방판 4월 런칭 예정)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인삼에서 유래한 설화수만의 독자적인 미백 성분인 백삼 사포닌과 보습 효능이 탁월한 백삼 농축 다당체가 만나 투명한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겨우내 탁하고 칙칙해진 피부를 봄처럼 화사하게 가꿔준다.



#미백끝판왕
#동안브라이트닝
#백삼사포닌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50ml, 21만원.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고, 마치 수분 에센스처럼 촉촉해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한 사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꾸만 찾게 된다.”

-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헤라 시그니아 크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수선화의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나르시스 식물 세포와 세포 주변 구성물을 모사한 나르시스 스템코드™를 함유해 피부 주변 환경까지 개선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피부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탄탄하게 리프팅해 젊은 피부를 되찾아준다.



#나르시스스템셀
#나르시스스템코드™
#피부생명력

헤라 시그니아 크림.
60ml, 28만원.

“뚜껑을 여는 순간 피어오르는 고급스러운 꽃향기가 기분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크림. 실처럼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는 텍스처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다.”

-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희진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춥고 척박한 고산지대에서도 싹을 틔우는 야생 스토베리 새싹과 블랙베리 추출물을 담은 알파인 베리 콤플렉스™의 보습 인자가 피부에 수분과 생기를 가득 채워주는 크림. 코코넛 유래 오일을 함유해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피부 방어력을 높여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준다.

“과라벤,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합성색소, 인공 향을 함유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듬뿍 듬뿍 바를 수 있는 착한 크림이다.”

-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보나

#사계절수분크림
#착한수분
#수분폭탄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50ml, 3만7천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건조한 봄,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커버해줄 안티에이징 쿠션.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받은 녹차 품종 '장원3호'에서 얻은 엽솔루티™가 피부 속 보습과 탄력 인자를 활성화하고 녹차 꽃 추출물이 화사하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리얼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함유되어 쿠션을 바르는 것만으로 방금 스파에서 관리받은 듯 고급스럽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다이아광채쿠션
#녹차꽃쿠션
#고급스파광채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 PA++++, 15gX2, 12만원.

“촉촉한 쿠션 없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1순위로 추천하는 쿠션. 수분이 금세 날아가는 다른 쿠션과 달리, 수분과 영양감이 오래 지속되는 텍스처로 고급스러운 피부로 연출할 수 있다.”

-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향진



팔레트 하나로 완성하는 4가지 메이크업

헤라의 2020 S/S 컬렉션 레인보우 일루전 하나로 4가지 메이크업 시도하기!

LOOK 1. BLOSSOM CHEEK

화사한 퍼플 블러셔가 돋보이는 룩. 아이 메이크업은 최대한 심플하게 한 뒤 블러셔를 원하는 농도에 맞춰 바르면 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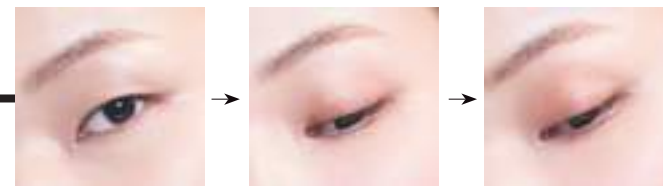
step 1 눈두덩에 멀티 팔레트 중 크림 아이섀도인 ① 스프링 헤이즈를 발라 영롱한 빛을 더한다.
step 2 볼에는 ⑩ 별론 퍼플을 관자놀이부터 광대뼈 전체를 감싸듯 바른다.
step 3 ⑧ 실루엣을 광대뼈 아래에 둥글게 바르며 그라데이션해 음영을 더한 뒤 센슈얼 스파이스 누드 밤 #애씨드 핑크를 입술에 발라 마무리한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GLITTER EYES

털이 은은하게 감도는 아이섀도로 포인트를 주면 메이크업이 한결 화사하고, 봄의 여신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step 1 눈두덩에 멀티 팔레트 중 ① 스프링 헤이즈를 바른다.
step 2 ② 리플렉션을 가로로 가볍게 펴 바른 뒤 동공 위쪽에 한 번 더 발라 포인트를 준다.
step 3 ⑦ 데이드림을 언더 아이라인에 발라 영롱한 반짝임을 더하고, 입술에는 센슈얼 스파이스 누드 밤 #애씨드 핑크를 바른 뒤 입술 안쪽에 #애플 코랄을 덧발라 생기를 준다.



헤라 레인보우 일루전 멀티 팔레트, 10구 10g, 8만원.
 헤라 레인보우 일루전 센슈얼 스파이스 누드 밤, #애씨드 핑크/#애플 코랄, 각각 3.5g, 3만5천원.



LOOK 3. MULTIPLAY

다양한 컬러를 제품 하나에 모아놓은 메이크업 팔레트를 200% 활용하고 싶다면 컬러를 믹스 매치하는 재미에 빠져보길. 메이크업이 한층 더 풍성해질 것이다.



- step 1** ⑥ 블루밍을 눈두덩 중심에 가볍게 바른다.
- step 2** ⑤ 디카페인을 눈꼬리 부분에 바른 뒤 아이홀을 따라 안쪽으로 그라데이션한다.
- step 3** ④ 로스트 선셋을 눈머리에 살짝 바른 뒤, 3가지 컬러를 동글동글 퍼뜨리며 부드럽게 그라데이션한다. 입술에는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애플 코랄을 가볍게 바른다.



LOOK 4. WET SMOKY

브라운 컬러를 이용한 스모키 메이크업이 맛있게 느껴진다면 그 위에 글로시한 텍스처를 더해 시크하게 연출해볼 것.



- step 1** ③ 골드더스트를 아이라인을 따라 풍부하게 바른 뒤 아이홀 전체에 그라데이션한다.
- step 2** ⑤ 디카페인을 언더아이라인에 얇게 발라 선명한 눈매를 연출한다.
- step 3** 세련된 느낌을 더하기 위해 ⑩ 서울블루를 눈두덩 중심으로 살짝 덧바르고, 입술에 같은 컬러를 립밤처럼 발라 글로시한 광택을 더한다.

헤라 레인보우 일루전 멀티 팔레트, 10구 10g, 8만원.
헤라 레인보우 일루전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밤, #애씨드 핑크/#애플 코랄, 각각 3.5g, 3만5천원.

PHOTOGRAPHY: AHN JIN HO(אהן צ'ין הו), MODEL: KIM JOO HYANG,
 MAKEUP: JAMIE YOON, JANE PARK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PARK CHANGDAE, STYLING: PARK MI KYUNG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_오리지널
리리코스를 앰플의 명가로 만들어주는 일등 공신. 오리지널 마린 포뮬러로 마린 보습 효능을 발휘해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수분 공급 프로그램. 5ml×12, 11만원.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스킨 리파이너
탁월한 보습 기능으로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고보습 스킨. 해양 추출물의 강력한 마린 에너지로 다음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를 높이는 부스팅 작용을 한다. 150ml, 4만원.



깊은 수분을 보장하는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피부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하기로 유명한 리리코스의 대표 보습 라인인 마린 하이드로 라인.

봄철 건조한 피부를 촉촉히 적셔줄 수분 제왕을 만나보자.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_오리지널 수분량 증가

13.8%

피부 균일도 개선

12.5%

피부 윤기 개선

7.7%

*시험 기간: 2012년 11월 20일~12월 14일
시험 대상: 성인 여성 20명(평균 30.7세)
시험 기관: ㈜더마프로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에센스 인 에멀전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보습 에센스 성분을 함유해 하루 종일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에멀전.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에센스 성분이 들어 있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00ml, 4만5천원.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인텐스 세럼
강력한 보습 성분인 마린 하이드로 패스™가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수분 세럼. 끈적이지 않는 산뜻한 텍스처가 매력적이다. 40ml, 6만5천원.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인텐스 크림
풍부한 수분,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효과적으로 맞춰준다. 멜팅 다운 포뮬러로 사르르 녹아내리는 편안한 텍스처가 특징. 70ml, 8만원.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라인

①

피부 수분 보유력 강화-마린 하이드로 패스™
거친 파도와 바람에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해양 식물. 강인한 37지 해양 식물의 복합체인 마린 하이드로 패스™가 피부 네트워크 강화에 도움을 주어 풍부한 수분과 보습감을 제공한다.

②

풍부한 미네랄 공급-해양심층수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 605m에서 끌어올린 미네랄이 풍부한 저온의 해양심층수가 보습감을 주고 수분 보유력을 강화해주는 동시에 풍부한 미네랄을 공급해 촉촉하게 빛나는 듀이 스킨(dewy skin)으로 가꿔준다.

③

말끔한 흡수력과 부스팅
제품별로 최상의 텍스처로 이루어져 얼굴에 말끔하게 스며들고 이후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를 돕는 부스팅 효과를 발휘한다.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은 피부가 건조할 때 이것 하나만 발라도 좋고, 평소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에 섞으면 보다 촉촉하고 윤기 나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은 20년 전부터 내 화장대를 채운 필수품이었다. 피부가 푸석하거나 건조할 때 바르면 즉각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창진

“앰프로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라인에 입문했는데, 리파이너부터 에멀전, 세럼까지 모두 최고의 보습 제품으로 손색없다. 그야말로 완벽한 라인업이다.”

- <마리골레르> 뷰티 디렉터 윤취진

바이탈뷰티 명작수
 인삼의 뿌리와
 열매(부원료)를 모두
 담은 프리미엄 홍삼 앰플.
 신체 내부로부터 본연의
 생명력을 깨워 생기 있는
 건강을 되돌려준다.
 20g×30앰플 16만원,
 20g×50앰플 26만원.



홍삼의 명작 바이탈뷰티 명작수

외부 유해 환경이나 스트레스, 과로 등에 영향을 덜 받는 굳건한 건강과 생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바이탈뷰티 명작수가 답이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편이라 겨울이면 괴로웠는데, 지난겨울은 명작수 덕분에 편안하고 활기 차게 보낼 수 있었다.”

- 패션 & 뷰티 에디터 안새롬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앰플형이라 물에 타 먹거나 쓴맛을 직접 느껴야 하는 거부감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즐겨 먹고 있다.”

-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보나

“어머니가 수년째 섭취하고 있는 명작수. 업그레이드되며 진해져 더욱 신뢰가 간다고 하셔서 지난 명절에도 명작수를 선물했다.”

- 뷰티 엑스퍼트 이성진

바이탈뷰티 명작수

①

귀한 홍삼의 기운을 다스리는 특별한 기술-천삼화 홍삼
 단시간에 높은 압력을 주어 홍삼의 유효 성분을 최대한 얻어내는 인삼 가공 공법인 천삼화 기술을 적용한 홍삼농축액부터 귀한 인삼열매(부원료)까지 모두 담아낸 앰플.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인삼 일생 중 단 한 번 얻을 수 있는 진귀한 원료-인삼 열매(부원료)
 인삼 열매는 4년 이상 된 인삼에서 7월 중 단 한 주만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분. 열매가 열리면 뿌리로 가던 영양분이 열매로 집중되기 때문에 인삼 열매는 뿌리와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바이탈뷰티는 열매를 얻는 인삼을 따로 관리하며, 아모레퍼시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진생베리 표준화 기술을 더해 명작수에 담았다.

③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첨가물 배합
 보조료, 착향료,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맛을 내어 홍삼의 쓴 맛을 싫어하는 사람 등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앰플 형태가 매력적이다.

진세노사이드
 Rg1+Rb1+Rg3

16mg

식약청 인증 건강기능성

5가지

(면역력, 피로, 혈행, 항산화, 기억력)

홍삼업계

최초

장명실상수상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CHOI HYANG JIN

흔들림 없이 맑게 차오르는 피부,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랙트 에센스

한국에 단일 유효 성분 화장품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자 탁월한 효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랙트 에센스가 인기에 힘입어 디럭스 사이즈로 출시되었다.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CHOI HYANG JIN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랙트 에센스

1

천혜의 녹차 생산지-제주 돌송이 차밭

햇볕과 깨끗한 물이 풍부한 제주도의 돌송이 차밭은 아모레퍼시픽이 최고의 원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장인 정신으로 30년 이상 녹차를 길러낸 다원이다. 이곳에서는 항산화 효능이 탁월한 카테킨 성분이 풍부한 최고급 녹차를 생산한다.

2

뛰어난 항산화 성분-Vintage Tea Leaf™

제주 돌송이 차밭에서 재배한 최상급 녹차를 두껍게 쌓아 인위적 효소를 첨가하지 않고 50일간 자연 발효시키고, 이를 제주 전통 용기에 담아 다시 50일간 자연 숙성시키면 귀한 카테킨 성분을 가득 지닌 빈티지 티 리프™가 탄생한다.

3

완벽한 단일 추출물을 위한 기술-Full Body Extraction™

100일간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친 발효 숙성 차에는 숙성되지 않은 녹차에서는 보기 힘든 귀한 카테킨 성분이 가득하다. 항산화 효능이 탁월한 이 성분을 온전히 추출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한 방울 한 방울씩 빈티지 그린티를 추출하는 풀 바디 익스트랙션™ 기술을 사용했다.

녹차의 숨은 힘을 깨우는 자연 발효와 숙성

100일

발효차의 정수를 위한 또 한 번의 기다림

24시간

사용 4주 만에 높아진 피부 항산화 지수

5.9배

*4주 사용 후
피부 각질을 이용한 항산화 효소(catalase)의 활성 측정 결과
시험 기간 : 2016년
10월 31일~12월 2일
시험 대상 : 39~49세 여성
(평균 약 45.7세) 22명
시험 기관 : (주)더마프로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랙트
에센스 디럭스 사이즈
제주 돌송이 차밭에서
엄선한 녹차만을
선별해 100일 동안
자연 발효와 숙성을
거쳐 완성한 단일
성분 에센스. 강력한
항산화 효능으로 피부를
투명하고 탄탄하게
가꿔준다. 240ml,
24만5천원/120ml,
17만원.

“피부가 컨디션 난조를 보일 때면 빈티지 에센스를 여러번 덧바른다. 피부 속 갈증을 해소하고, 푸석한 피부에 광을 되살려주는 내 피부의 구원자다.”

- <스타일러 by 주부생활> 에디터 **성정민**

“7-스킨십의 스킨으로, 화장솜에 듬뿍 묻혀 마스크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센스라 재여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대용량이 나와 반갑다.”

-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희진**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성분을 최소화한 제품을 선호한다.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에센스는 가장 신뢰가 가고 효과를 본 제품. 대용량으로 출시돼 더욱 반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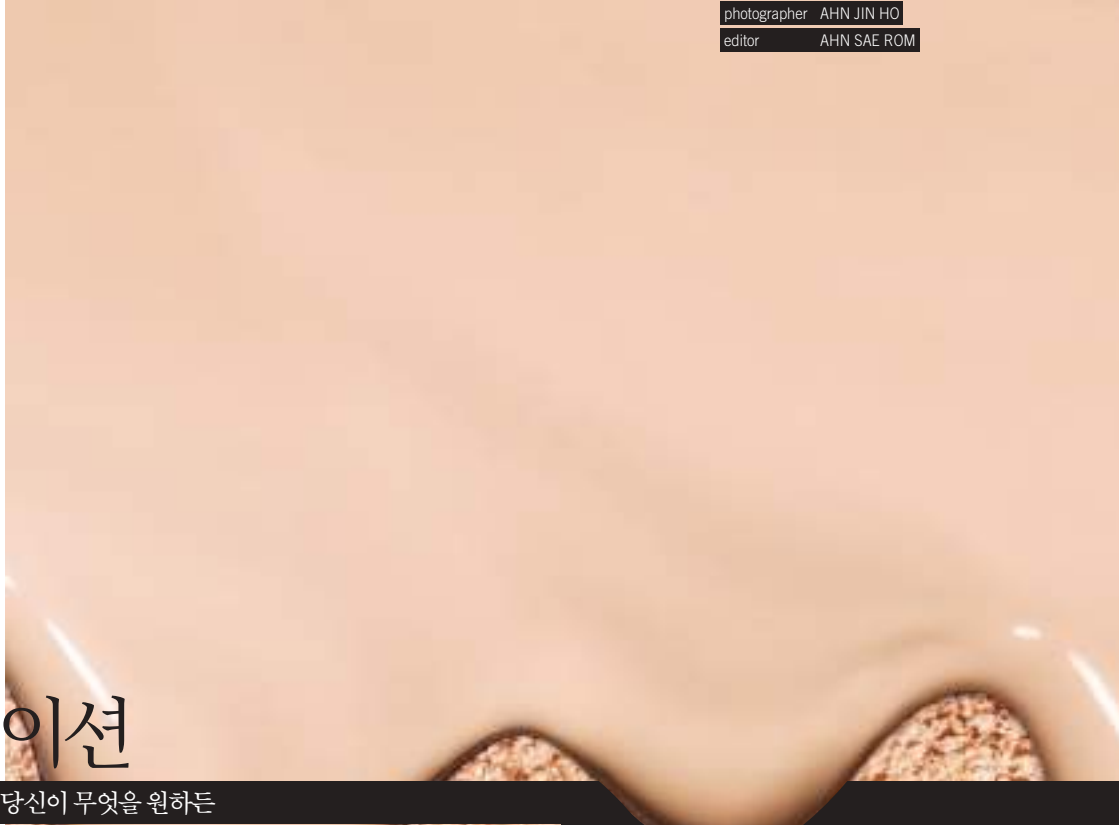
-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보나**



지속력 ★★★★★

for 완벽한 커버에 촉촉하면서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베이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35ml, 6만원.
출시 직후, 대한민국 파운데이션 시장을 장악한 메가히트 아이템.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하게 유지되는 '겉바속촉' 파운데이션으로 입소문을 타며, 건조녀뿐 아니라 지성 피부를 지닌 소비자까지 사로잡았다. 쫀득한 제형으로 바를 때 모공이나 주름에 끼지 않고 한 번만 터치해도 피부 결점이 깨끗이 커버될 뿐 아니라, 이 상태가 하루 종일 다크닝 없이 유지되니 사랑할 수밖에! 시크한 케이스 역시 인기를 모은 요인 중 하나다.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AHN SAE ROM

커버력 ★★★★★

for 강력한 커버력으로 피부 결점을 완벽히 감춰주는 베이스

설화수 에서 파운데이션(리퀴드) SPF15/PA+. 30ml, 5만5천원.
피부 결점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에 보습력까지 우수한 파운데이션. 물에 먹을 갈아 색을 내는 농묵의 원리를 차용한 특별한 제품이다. 색소를 촉촉한 보습 성분으로 감싸 곱게 갈아내는 농묵 공법을 적용해 피부 주름 등에 끼는 일 없이 균일하게 커버해준다. 3중 보습 포뮬러라 에센스를 바른 듯 촉촉하면서도 산뜻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볍게 발라도 균일하게 퍼발려 피부 결점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다. 커버의 끝판왕을 찾고 있다면 이 파운데이션이 해법.



NEW 시즌, NEW 파운데이션

보송보송한 마무리, 스킨 받은 듯한 윤기, 완벽한 커버 혹은 내추럴 피니시 등.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이 4가지 파운데이션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파운데이션 집중 비교 분석!

윤기 ★★★★★

for 산뜻하면서도 수분을 듬뿍 머금은 듯한 윤기 베이스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25/PA++. 35ml, 6만5천원.
'글로우 래스팅'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윤기를 더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생기 있는 피부로 연출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심지어 이 맑은 윤기와 커버력이 무려 24시간이나 지속되는 놀라운 파운데이션이다. 보습 성분이 풍부해 피부에 촉촉한 윤기를 더해주는 동시에 투명 필름막으로 코팅하듯 감싸 타고난 좋은 피부처럼 보이게 도와준다. 이번 시즌 트렌드인 듀이 스킨을 연출하고 싶다면 이 파운데이션을 추천한다.



밀착력 ★★★★★

for 보송하게 피팅되어 화사함을 선사하는 베이스

설화수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25/PA++. 30ml, 5만8천원.
쉬어 하이dra 포뮬러로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면서 들뜨지 않고 보송하게 마무리돼 화사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산자나무 열매의 유효 성분을 동결건조 방식으로 추출해 항산화 효과와 브라이팅 효과를 제공한다. 피부 친화적인 성분으로 코팅한 파우더를 사용해 굴곡 없이 매끈하고 자연스럽게 빛나는 화사한 피부를 표현해주는 것도 강점.



#프리메라
#6-FREE 성분
#데일리 각질케어



생생한 제품 평가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을 써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후기.

@raon_hj

진짜 순한 필링 젤!
피부에 자극이 심한
제품을 못 쓰는 분에겐
이게 딱이네요.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을
쓰고 난 다음 날은 화장
먹는 게 달라요.



@mihee0331

얼굴 각질은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으로
정리해요. 자극 없이 순한
데다 사용 후에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화장도 잘
받아서 필수템으로 쓰고
있어요.



@hyoooooogenie

저자극 필링 제품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을 아침저녁으로
소량 덜어 얼굴에 살짝
문지르기만 해도 각질이
싹 없어지고 피부가
매끌매끌해져요.



@eeejjii

여행 갈 때도 챙기는 필링
젤! 특히 여행지에서 물이
맞지 않아 피부가 뒤집힐
때나 세안을 꼼꼼하게
하지 못할 때 한 번씩
쓰면 좋아요.



@_ecaille_

필링 후 얼굴이 땅기거나
뻘뻘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은
바이오 폴리머 필름이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줘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lloolllo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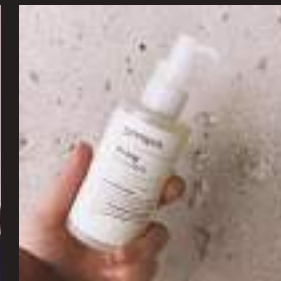
지구를 지키는 착한
브랜드 프리메라!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다고
소문난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을 써봤는데 자극이
적으면서 각질 정리도
깔끔하게 잘돼 자꾸만
손이 가요.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 150ml,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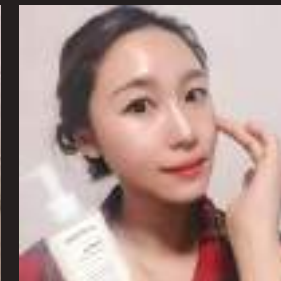
@serendipiti952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착한 브랜드 프리메라의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
몇 번 써보니 각질 제거
후에도 자극이 적고
얼굴이 땅기지 않아
좋았어요. 제품 속
바이오 폴리머 필름이
필링 후 피부에 막을
형성해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themilk89

저는 워낙 각질 부자라
각질 정리만 잘해도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해요.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으로 쓱쓱 부드럽게
피부 각질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환절기
스킨케어 루틴에 포함해
민고 쓰고 있어요.



@dpzlf2

건강한 피부로 지키려면
주기적인 각질 정돈은
필수!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으로
얼굴 각질을 관리하고
있어요. 기존에 즐겨
찾던 브랜드의 제품이라
안심되고 제형도
만족스러워요. 다 쓰고
나면 재구매해 쓸까 봐요.



@loelna_eun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각질 제거 제품을 드디어
찾았어요.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은
착한 성분으로 만들어
순하면서도 각질 제거
효과는 확실하죠.
사용하면 피부가
반질반질해져 화장도
잘 받으니 기분까지
좋아져요.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LEE SUNG JIN

내 피부의 구원자, 시카

피부가 예민하거나 피부 때문에 속앓이 좀 해본 사람이라면 이미 몇 개는 갖고 있을 시카 화장품. 갈수록 민감해지는 피부 때문에 급격하게 친해지긴 했는데, 과연 우리는 시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유난히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의 최첨단에서 있는 뷰티업계. 특히 화장품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은 만큼 피부에 좋은 특정 성분이 크게 주목받은 한다. 히알루론산, 아하(AHA)와 바하(BHA), 세라마이드를 거쳐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회자되는 것이 바로 시카.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다 고성능 온도 조절 기기의 사용이 늘며 실내의 더욱 건조해지고, 사계절 내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카에 대한 관심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듯 과거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에서 한정적으로 선보이던 시카 제품을 이제는 수많은 브랜드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거대한 라인업을 형성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것이 사실. 시카(cica)는 상처를 뜻하는 프랑스어 시카트리스(cicatrice)에서 유래한 단어이자 시카 크림의 주원료로 알려진 센텔라 아시아티카(centella asiatica)의 준말로 알려져 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3천여 년 전부터 동인도제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널리 활용해온 식물. 우리나라에서는 상처를 입은 호랑이가 그 위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병풀 혹은 호랑이풀로 부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사용해온 식물인 만큼 관련 연구도 활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효능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핵심 효능은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에서도 알 수 있듯 피부 진정에 탁월하다는 점. 또한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 중 1~8%를 차지하는 사포닌은 트러블 케어에도 도

움을 준다. 그야말로 전방위로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고마운 식물인 셈이다. 화장품업체들은 이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유효 성분을 물 없이 파우더 타입으로 추출한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 즉 마데카소사이드를 화장품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효 성분의 함량이 높다고 상처 치유 연고를 크림처럼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은 절대 금물. 향생제 등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지속적으로 바르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대신 화장품 형태로 고안한 시카 화장품은 비교적 오랜 시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꾸준히 쓸수록 자극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피부 상태가 수시로 바뀌는 환절기와 미세먼지가 피부 속까지 피륙하는 이맘때 사용하기에 제격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시카 화장품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제대로 추출해낸 마데카소사이드를 함유한, 믿을 만한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 여기에 더해 풍부한 보습 성분으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되돌려줄 제품이라면 매일 피부가 조금씩 더 젊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시카 크림은 시카 성분에 안티에이징 성분까지 더하기 때문에 피부가 중성이거나 지성인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쓰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산뜻한 제형의 제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프리메라의 리페어빈™ 시카 라인인 마데카소사이드와 발효 콩에서 추출한 회귀 이소플라본 성분인 리페어빈™을 함유해 자극 받은 피부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촉촉하게 유

지해준다. 자극 받은 피부를 위한 제품인 만큼, 동물성 원료와 광물성 오일, 파라벤 등 10가지 성분을 쓰지 않고, 피부과 테스트와 하이포알러지 테스트,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했다. 시폰 케이크처럼 사르르 녹는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크림의 제형과 우유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의 제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 피부에 가볍게 밀착해 답답한 느낌이 싫은 사람이라도 거부감 없이 쓸 수 있다. **10**

TIP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수분 진정 에센스. 우유처럼 부드럽고 촉촉하게 스며드는 산뜻한 제형이다. 50ml, 3만5천원.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크림. 건조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피부 장벽 강화 크림. 젤 타입의 밤 제형으로 가볍게 발리고 튜브 타입이라 위생적이다. 40ml, 3만5천원.

REFERENCE: <세계인용식물백과사전> (저오웅진, 시오페이진)

손으로 만드는 행복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은 꼭 행복한 일이다. 특히 내 손으로 직접 작품을 만들어낼 때 나오는

엔도르핀은 꽤 중독적이다. 이런 수공예의 즐거움에 빠져 공방까지 오픈한 4명의 여성을 만났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핸드메이드 제품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주말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핸드메이드 작품을 판매하는 플라마켓이 열리고, 작가들의 수공예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생겼다. 짧은 시간 내에 노하우를 배워 자신만의 작품을 똑딱 완성할 수 있는 공방 클래스에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공자가 아닌데도,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핸드메이드의 매력에 빠져 이젠 공방지기가 된 이들은 핸드메이드가 누구나 만끽할 수 있는 힐링 테라피라고 말한다.

자수를 하기 전에는 에디터였다고 들었어요. 문화 콘텐츠를 전공한 뒤 프리랜스 에디터로 일했어요. 새로운 것을 찾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게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맛집 취재나 작가 인터뷰 등 라이프스타일 관련 칼럼을 주로 썼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인터뷰이의 삶을 동경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베이킹이나 캘리그래피, 그림 등을 배웠죠. 자수에도 관심이 많던 차에 우연히 정통 자수를 하는 분을 인터뷰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끌리더라고요. 인터뷰가 끝난 뒤부터 자수를 공부했고 스쳐가는 취미였던 다른 일들에 비해 하면 할수록 매력을 느껴 본격적으로 자수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플라마켓에서 제 작품을 본 분들이 강의를 하면 어떨겠느냐고 물어보셔서 공방까지 오픈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자수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심



전은영
프랑스 자수와 재봉틀 수업을 하며 작품도 만드는 중. 성산동에 위치한 그녀의 공방 '자수하는 으녘씨'는 색색의 털실과 다양한 자수 작품으로 채워져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자수가 일정한 모양을 반복해서 채워가는 것이 특징이라면, 프랑스 자수는 원하는 선과 면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점이 매력이에요. 기법이 4백여 가지에 달할 만큼 다양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채우는 기쁨이 있죠. 손뜨개나 퀼트처럼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금방 작은 작품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점도 좋아요. 물론 복잡한 그림 도안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손으로 하는 자수와 기계 자수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계 자수는 원단에 글자나 그림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양감이 느껴지는 손자수와는 달리 기부터 달라요. 또 기계 자수는 얇은 실로 정교하게 작업하는 반면, 손자수는 작가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두께의 실로 다채로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죠.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자수 클래스는 대부분 강사의 자수를 따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제 커리큘럼은 좀 특별해요. 정규반은 정해진 도안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수놓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수강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수업에 참여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제가 직접 만든 원피스에 자수를 놓고 있어요. 자수에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거든요. 원단에 그림을 그리고 자수로 포인트를 주던가 비즈나 펠트지로 자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요.

photographer KIM Z WON
editor LEE SUNG JIN



유리공예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스테인드글라스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테리어를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관련 회사에 다녔고요. 직업의 특성상 해외 디자인 잡지를 많이 봤는데, 어느 날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테라리엄이 눈에 띄더라고요.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든 테라리엄이 무척 예뻐서 사고 싶었는데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었어요. 그게 갖고 싶어 '직접 만들어보자'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방이 많이 늘어났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스테인드글라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멀리까지 가서 수업을 들은 기억이 나요. 유리를 자르고 납땜하는 작업을 집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방을 열었고, 이후 작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어떻게 만드나요? 기본은 색색의 유리를 잘라서 그 사이를 납땜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수업 역시 유리를 직선과 곡선 형태로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거울 등 평면적인 것부터 조명 등 입체적인 것으로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고, 아주 간단한 평면 작품을 만드는 데 최소 3시간 정도 걸려요. 고난도 작업에 속하는 조명은 하나 제작하는 데 이틀 정도 소요되고요.

스테인드글라스를 직접 만드는 것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스테인드글라스는



기계가 만들 수 없어요. 오로지 수작업만 가능하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를 자르고 붙이는 단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데 체력이 꽤 많이 소모돼요. 수업을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힘들다'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만큼 성취감이 높죠. 작업을 할 때는 오롯이 여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지금 하는 일에 많이 지친 사람들, 잠깐이라도 고민을 잊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제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거요. 예를 들면 액티비티를 잘하지 못하면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패들보드와 서핑을 주제로 한 최근 작품처럼요. 앞으로는 빈티지 보석함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얼마 전까지는 선개척이 인기가 많았는데, 빈티지가 유행하면서 더 다양한 소품이 인기를 끌 것 같아요.

한수진
5년째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공방을 운영하며 누구나 거울, 조명 등 유리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돕고 있다.



마크라메가 무엇인가요? 끈이나 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는 서양 매듭을 말합니다. 30여 가지에 달하는 기본 매듭을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접목해 조그마한 플랜트 행어부터 가방이나 커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원래 다른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치위생사로 15년 정도 근무하며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그러다 직장을 관두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슬프게도 임신 6개월 만에 떠나보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죠. 우울이 극에 달했을 때 외국에서 우연히 마크라메 플랜트 행어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마크라메에 빠져서 무작정 실을 샀는데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책이나 유튜브 강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이리저리 매듭을 지어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어요. 작품을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남편이 칭찬해준 덕분에 자존감과 성취감도 높아졌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나는 작품을 보며 남편이 핸드메이드 페어에 나가보라고 권하더라고요. 페어에서 만난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공방을 오픈했고, 처음에는 '1년만 해보자' 했던 이곳을 벌써 3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마크라메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일단 보기에 예쁜 거죠. 짧은 시간에 번듯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스피드와 누구나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대형 작품을 만들 때는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플랜트 행어나 가방 등은 두세 시간이면 완성할 수 있거든요. 기본 매듭을 만드는 스킬을 익혀두면 클래스가 끝난 뒤 혼자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누구나 취미로 즐길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취미로 배우는 분만큼이나 창업 또는 강의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수강생도 많아졌습니다. 전문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얼마 전 중급자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책도 썼어요. 곧 출간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일산 가로수길 '리저브' 매장에 설치한 대형 월 행잉 작품이요. 홍콩의 유명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마크라메 작가를 찾았고, 최종적으로 저를 포함해 3명 정도가 물망에 올랐대요. 근데 작품의 규모가 가로 6m에 이를 만큼 크고 염색도 해야 하는데 작업 기간이 너무 짧아 다른 분들이 꺼렸나 봐요. 전 워낙 큰 작품을 좋아하는 데다 어머니가 치자나 속 등으로 천연 염색 작업을 하시는 터라 최종적으로 제가 맡게 되었어요. 홍콩 디자이너가 그려준 시안을 보고 며칠 밤을 새워 작업했죠. 이후 일부러 찾아가 커피를 마시며 제 작품을 보곤 해요.

마크라메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마크라메 자체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다른 공예에 비해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거든요. 찻잔을 받치는 코스터에서부터 소화기를 걸어두는 바구니, 가방, 선반 등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집처럼 커튼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전 요즘 국내에서는 드물게 우드 프레임 안에 작품처럼 마크라메로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느 미술 작품처럼 벽에 걸어둘 수 있어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여느 공방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인테리어 숍이나 카페 같기도 하고요. 사랑방 J는 사실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좋아하고 제가아는 것을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그리고 힐링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죠. 공간을 먼저 마련한 뒤에 여기서 무엇을 할까 고민해봤는데, 많은 준비 없이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라탄 클래스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의도가 통했는지,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가는 분이 많아요.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라탄 공예를 개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디자인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거든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늘 예쁜 소품에 관심이 많아서 잡지를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왔어요. 졸업 후에는 가방과 신발 만드는 일을 했어요. 평소 집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해서 SNS에 집 꾸민 사진을 올려봤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이 연락해서 자연스레 라이프 스타일리스트가 되었죠.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 아무래도 소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 비전공자라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디자이너와 작업하다 보니 수정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플라워나 가드닝 등 인테리어와 관련 있는 분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라탄 공예였어요.

라탄은 여름에 적합한 소재 아닌가요? 라탄은 원하는 색으로 염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입혀 만들면 사시사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다크 브라운 컬러 바구니를 객실 내 타월 바구니로 1년 내내 활용하는 호텔도 많거든요.



조효진
라이프 스타일리스트이자 라탄 공예 디자이너. 인테리어 숍 못지않게 예쁜 소품이 가득해 한번 발을 들이면 떠나고 싶지 않은 공방 '사랑방 J'를 운영하고 있다.



요. 다만 계절별로 많이 찾는 작품은 명확하게 달라요. 봄에는 꽃바구니, 여름에는 패션 소품인 모자나 가방, 가을에는 과일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나 채반, 겨울에는 캠핑에 활용하는 전등갓이나 이소가스 워머가 인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어디선가 본 듯한 작품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죠.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 와인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제가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혼자 구상하고 작업하는 데 꼬박 이틀이 걸렸는데, 보는 사람마다 탐낼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세요. 라탄 공예 책을 만들었는데, 곧 발간될 예정이에요. 여유가 생기면 라탄 가구도 만들고 싶어요. 라탄 공예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가구거든요. 몇 주에 걸쳐 만들어야 의자나 장식장 문 같은 것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해보려고요. **LD**



HAIR: JO SO HEE, MAKEUP: BAE HYE RANG, STYLING: LEE GYEONG WON

Soft Powder

프라도어 퍼스웨이드 바디오드 퍼퓸 06
불쾌한 체취는 제거하고 좋은 향만
은은한 살냄새로 남겨주는 바디 퍼퓸.
우아하고 부드러운 파우더 향으로 살에
뿌리면 깊은 향이 오래 지속된다.
100ml, 6만7천원.



Sensual Musk

구말 파리 뒤엘 오드 퍼퓸
거친 듯한 질은 가죽 냄새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럽고 오묘한 머스크
향으로 남는다. 중성적인
향을 선호하는 여성이
사용하거나, 남성이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좋은
향이다. 100ml, 21만4천원.

Fine Wood

구말 파리 오드무슈
오드 무왈렛
묵직한 우드 계열 향을
좋아한다면 남성 향수에도
눈을 돌려보자. 청량한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해 깊이
있는 파출리와 샌들우드
향으로 마무리된다.
100ml, 21만4천원.

한 가지 향수를 1년 3백65일 하루같이 뿌리며 '내 향기'라고
주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옷과 makeup이 TPO에
맞아야 하듯, 향수도 그날의 분위기와 스타일, 장소에 맞게
달라야 한다. 봄나들이를 가거나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었다면 시트러스나 플로럴 계열을,
특별한 날 고풍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머스크나 우디 계열을 선택한다면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다.



Flowery Chypre

구말 파리 페뉴드스와레 오드 퍼퓸
구르망 시프레 계열의 향수.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아이리시와
고혹적인 파출리 향이 시간이 지나도
은은하게 감돈다. 베이킹을 할 때 나는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와 비슷한 구르망
계열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 남성에게
어필하기에도 좋은 향이다.
30ml, 11만8천원 / 50ml, 19만8천원.

Fruity Floral

구말 파리 뷔뜨뜨 웨리 오드 무왈렛
아니 구말이 딸 까뮈 구말의 스무 살을
기념해 만든 향수. 풋풋하고 싱그러운
폴 향과 복숭아, 배, 바닐라의 달콤한
향이 뒤엉켜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잔향이 특징.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좋지만, 특히 살랑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나 무더운 여름에 잘 어울린다.
100ml, 19만8천원.



봄을 깨우는 향기

온몸으로 파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봄. 싱그럽고 향긋한 데일리 향수를 찾고 있는
사람을 위해 오감으로 즐기는 키노트별 향수 5가지를 추천한다.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AHN SAE ROM



새로운 계절, 새로운 가구



새봄, 기분 전환이 되는 인테리어 소품과
평생 곁에 둘 수 있는 우아한 가구를 탐색할 수 있는 곳.

editor AHN SAE ROM



DELLA BOTTEGA – 델라 보테가

여성복 디자이너와 바리스타 부부가 운영하는 미드센트리 오리지널 가구 편집숍 겸 카페 델라 보테가. 이탈리아어로 공방을 뜻하는 보테가(bottega)라는 상호에 걸맞게 대표가 직접 셀렉트, 바잉, 디스플레이까지 세심하게 관리한다. 강남구 세곡동에 자리한 숍 내부는 바우 하우스를 떠올리게 하는 삼원색과 아치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카르텔, B&B 이탈리아, 이구찌니 등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 브랜드의 1950~60년대 디자인 가구와 조명을 보고 싶다면 방문해볼 만하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622길 10 1층
영업시간 화~토요일 12:00~19:00

STANDARD.a – 스탠다드에이

수제 원목 가구 마니아라면 스탠다드에이의 베이직 아이템을 눈여겨볼 만하다. 가장 정직한 첫 번째 제안이라는 뜻의 상호처럼 담백하면서도 소박한 정서가 느껴지는 원목 가구를 선보인다. 복합 문화 공간 '피크닉'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가구(길이가 18m나 되는 우드 테이블)를 디자인하기도 한다. 등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케인 웨빙 방식을 캐비닛 문에 적용한 High Chest 03 수납장이나 대표 디자인인 Chair 03 체어 이외에도 나무 도마, 테이블 등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 리스트를 살펴본 뒤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통한 오더메이드가 가능하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3길 10
영업시간 화~일요일 11:00~19:00

THE CONRAN SHOP – 더 콘란샵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 콘란샵의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약 1천 평(약 3300㎡) 면적의 규모만큼이나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의 종류와 제품의 가짓수도 다양하다. 아르텍, 비트라, 칼한센앤선, 조지 넬슨, 루이스 폴센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디자인 체어뿐 아니라 큐레이팅 아트 북과 서적, 소품이 콘셉트가 각각 다른 공간(1, 2층)에 전시돼 있다. 터런스 콘란 경의 심미안으로 선택한 디자인 가구와 컬래버레이션 아이템, 어마어마한 물량의 디자인 소품을 한곳에서 둘러보고 싶다면 이곳만 한 곳이 없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01(대치동) 롯데백화점 강남점
영업시간 월~목요일 10:30~20:00, 금~일요일 10:30~20:30

사진 제공: 각 매장

ONE ORDINARY MANSION – 원 오디너리 맨션

미드센트리 오리지널 가구 편집숍으로 소문이 자자한 원 오디너리 맨션이 수원 광고에서 서울 강남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규모의 공간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LC3 체어부터 피에르 잔레, 샤를로트 페리앙, 허먼 밀러, 알바로 알토의 작품까지 아름다운 빈티지 가구를 만날 수 있다. 섹션마다 빈티지 가구의 특성을 살려 음악과 분위기를 달리 해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듯한 동선이 매력적이다. 예약제로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인스타그램(@oneordinaryman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7길 24(자곡동)
영업시간 월~토요일 11:00~19:00(예약제 운영)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건강의 기본. 잘 먹는 것이야 어렵지 않은데, 잘 자는 것이 도무지 쉽지 않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57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부터 연평균 8.1%씩 꾸준히 증가한 수치로, 국민 1백 명 중 1명이 병원을 찾은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 중에는 수면장애를 가벼이 여겨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5명 중 1명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잘 잔다는 것은 보통 침대에 누운 뒤 20분 내에 잠들고, 아침까지 깨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잠자리에 든 지 오래 지나도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 자신의 코 고는 소리에 놀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면 수면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수면장애 환자의 60~70%를 차지하는 불면증의 경우 겨울 전후 환절기인 3월과 10월에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적인 수면장애는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 면역 기능과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 소화기, 심혈관계, 내분비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증상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아래 불면증 체크리스트 중 4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면증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잘 자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이처럼 꿀잠 자는 법

푹 자고 일어난 날 아침의 개운한 심신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할 만큼 기분 좋은 그 즐거움을

느껴본 것이 언제이던가. 엮어가도 모를 아이처럼 잘 수는 없을까?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LEE SUNG JIN

불면증 체크리스트

- 누운 뒤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 자려고 누우면 차 소리나 라디오 소리, 창문 넘어 들어오는 빛에 신경이 쓰인다.
- 꿈을 많이 꾸고 그 꿈이 다 기억난다.
- 자다 깨면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다.
- 집중력이 떨어졌다.
-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를 먹은 적 있다.
-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
- 성격이 예민하다.
- 평일에 못 잔 잠을 휴일에 몰아 잔다.
- 자다가 깨면 얼마나 잤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본다.

수면의 양에 얽매이지 않는다

적정 수면량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대개 7시간에서 7시간 30분이 적당하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라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이 수치에 얽매 여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6시간 30분만 자면 충분한 사람이 1시간 더 자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깊은 잠이 얕은 잠으로 흐려지고, 잠이 드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심신이 더 피곤할 수 있다.

잠이 올 때 침대에 눕는다

전문가들이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처방이 바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라는 것. 누워 있는 시간을 1시간 줄이면 불면증 환자의 90%가 전보다 더 나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잠이 오지 않는 데도 억지로 누워 잠을 청하기보다는 눈꺼풀이 자연히 내려올 때까지 책을 읽는 등 새로운 일을 해보자. 잠이 올 기미가 전혀 없다면 차라리 잠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속옷을 갈아입는 등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페인, 알코올, 담배를 멀리한다

마이클 보닛 박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신진대사 속도는 정상인에 비해 평균 9% 빠르다고 한다. 이는 일반인이 커피 4잔 정도를 마신 뒤 도달하는 신진대사율. 이 상황에 카페인을 더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커피를 마셔도 문제없다는 사람들 역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자주 깨며,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에는 되도록 카페인을 멀리해야 한다. 담배 속 니코틴 역시 혈압을 높이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며 뇌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등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끊는 편이 좋다. 알코올은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태엽 풀 시간을 갖는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손을 놓자마자 15분 내로 갑자기 잠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태엽 푸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욕

PHOTOGRAPHY: WWW.GETTYIMAGESBANK.COM, REFERENCE: <내 몸의 힘> (우치다 스나오), <잠이 보약이다> (피터 하우라 셀리 린드)

이나 마사지, 심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유효하다. 나는 스펀지다라고 생각하며 온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아래로 내려가는 상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의할 것은 모든 리추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천천히 여유롭게 움직이다 잠이 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해보자.

빛을 피한다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은 '어둠의 호르몬'으로 불릴 만큼 빛에 민감하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이 형광등의 백색 파장과 스마트폰의 블루 라이트. 몸을 각성시켜 불면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형광등을 끄는 대신 은은한 간접조명으로 바꾸고 스마트폰을 멀리할 것. 밖에서 빛이 스며드는 편이라면 암막 커튼을 다는 것이 좋다.

숙면에 도움 되는 음식을 먹는다

영양의 불균형은 피로나 흥분, 긴장 등을 불러오고 이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인스턴트식품을 멀리하고 샐러드를 많이 먹으며 지방 섭취를 줄일 것. 저녁은 가볍게 먹되,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면 닭, 콩, 두부, 우유 등 단백질을 섭취한다.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 되는 제품을 먹는 것도 좋다. **LD**

TIP

바이탈뷰티 이지슬립은 수면시간 증가, 입면시간 감소, 깊은 수면 증가 등의 효과를 지닌 쌀겨 추출물과 부원료로 유산균 녹차 발효 추출 분말, 마그네슘 등이 함유된 제품으로 이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수면리듬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바이탈뷰티 이지슬립
잠들기 1시간 전 3알을
복용하면 수면에 도움을
줘 다음 날 아침 한결
상쾌하게 깨 수 있다.
545mg×90정, 7만원.

디톡스 라이프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에디터가 디톡스에 도전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이든 넘치는 것, 즉 푸짐한 것에 익숙해져 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정보도 다양할수록 삶이 윤택해진다고 느낀다. 먹고 입고 바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 하나라도 더 잘 먹고 입고 바르면 더 건강하고 예뻐질 거라고 기대한다. 에디터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다.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바쁜 아침에도 스킨과 로션만 바르는 아쉽고, 식당에 들어 가서 메뉴 세 가지는 시켜야 직성이 풀리고, 워 플러스 원 제품은 무조건 사고 만다. 이런 생활 습관은 음식을 먹을 때 더 두드러진다. 식탐이 많은 편이라 하루 세끼도 모자라 간식과 야식을 늘 달고 살고, 2~3일에 한 번씩은 음식에 각종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다. 무엇보다 내 모토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 된다고, 좋은 사람들과 음식과 술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고, 굶는 다이어트 같은 건 도전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허리둘레와 군살이 덕지덕지 붙은 팔뚝과 엉덩이 부은 얼굴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한두 해다. 또 하루하루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 40대 초반이라는 나이까지 거른다. 선배들의 조언은 단순 무식한 다이어트가 아닌 식이 조절을 권하고 있었다. "운동은 그냥 숨쉬기처럼 해야 하는 거야. 앞으로 평생 꾸준히 하면 돼. 그런데 해독은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더 나이 들면 굶는 것도 못 하거든." "알고 보면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게 다 독이야." "피부 타입은 알면서 왜 네 몸에 맞는 음식은 안 찾니?"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어쩌면, 내 인생의 낙이라고 여기는 즐겁게 먹고 마시는 행위를 더 오래 누리려면 지금 디톡스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해독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뭐든 해보자는 마음에 조사에 들어갔다. 포털 사이트에는 해독이나 디톡스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정보가 넘쳐난다. 이 중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았다. 우선 '방법이 쉽고 기간이 길지 않으며 무조건 굶지 않을 것'이라는 나만의 조건을 만들었다. 조사하다 보니 간헐적 단식은 나 같은 직장맘에게 무리일 것 같아 해독을 선택했다. 이 중 비교적 기간이 짧은 해독 주스 디톡스는 하루에 두 끼의 주스를 마시고 한 끼는 일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채소나 과일을 직접 삶고 갈아 마시는 건 귀찮았고, 시중에 판매하는 해독 주스는 값도 비싸고 효과를 본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찾아 보니, 모 블로거가 소개하는 해독 주스 프로그램이 내게 적합해 보였다. 사실 단식이든 해독이든 전문가(가정의학 전문이나 한의사 혹은 식이요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전문가는 대개 한약과 함께 병원마다 내세우는 프로그램을 권해 주스만으로 효과를 보고자 하는 내 목표와 거



editor AN SO YOUNG

리가 있어 건너뛰었다(하지만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체질 진단이나 인바디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내가 선택한 해독 주스 프로그램은 총 21일짜리로, 평소 식습관과 체질, 체중에 따라 영양소를 맞춘 해독 주스 레시피에 따라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었다. 공복 시간을 늘리고 인슐린 저항이 없는 식단으로 한번 해독한 몸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비결. 따라서 모든 인스턴트 음식, 증지, 하루에 물 2L 이상 마시기, 일반 식사 조절 등 지켜야 할 사항은 생각보다 많았다. 다행히 해독 주스 만드는 방법은 시중에 판매하는 파우더를 이용하는 것이라 쉽고 간편했다. 해독 주스 레시피와 함께 블로거가 파우더를 구매하는 곳까지 알려준다. 원료 또한 원산지와 유기농 인증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한 것들이라 믿음이 갔다. 평소 변비가 심하고 육류, 어류 가리지 않는 식습관에, 미팅이나 술자리가 많은 나는 사과-케일즙을 기본으로 하는 그린 주스를 매일 아침에 마시고, 아몬드 우유와 현미 가루를 넣은 주스로 저녁을 대신했다(구체적인 레시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하게 공유하진 않는다). 처음 3일은 세계 모두 해독 주스를 마셨는데, 2일 차가 되니 두통이 나타났다.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인 명현 현상 중 하나라고 힘들면 바로 하루 한 끼는 일반식을 해도 된다고 했으나 그동안 굶는 것이 아까워 3일 차까지 세계 모두 주스를 마셨다.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 월요일 점심까지 이렇게 실천했는데, 그리고 나니 월요일 아침 아랫배가 쑥 들

어간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바지를 입었을 때 팍 조이는 느낌이 없었다. 몸무게도 1.5kg이나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내 몸속에 그간 쌓여 있던 독소가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하지만 처음 3일 차 이후는 고민과 타협의 나날이었다. 하루 한 번 일반식이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식 선택에 신중해졌다. 한 끼를 먹으니 '잘' 먹고 싶은 욕심이 앞선 것! 레시피에는 일반식을 먹을 때도 가려 먹을 것이 많았지만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 과식은 하지 않았지만 레시피에서 금하는 매운 김치찌개나 소고기, 디저트, 커피 등도 너그럽이 먹기 시작했다. 또 일반식은 보통 점심에만 권하는데, 저녁 미팅이 많아지면서 해독 주스는 아침, 점심 대용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저녁 미팅에는 술이 따르기 마련. 그러다 보니 속 들어갔던 아랫배가 다시 팽팽해진 느낌이 든 것이 14일 차. 몸무게도 이전으로 돌아왔다. 3일간 힘들게 뺀 독소가 다시 몸속에 찬 듯했다. 블로거와 상담한 후, 다시 처음 3일 세계 해독 주스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해독 주스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키지 못할 플랜을 고수하기보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블로거의 조언이었다. 해독 주스를 꾸준히 마시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아침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삶아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시는 모 브랜드 홍보 담당자부터 시중에 판매하는 해독 주스를 출근 후 마시는 옆자리 동료까지 각자 저마다의 해독 주스 프로그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나 역시 나만의 방법이 필요했다. 21일 해독 주스 프로그램은 평소 먹는 걸 좋아하고 미팅과 저녁 모임이 많은 내게는 긴 기간이었다. 그래서 주목한 주말 3일 해독 주스 프로그램. 이것이 요즘 내가 실행하는 방법이다. 주중에는 편하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해독 주스만 마신다. 물론 주말에도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한 끼 정도는 허용한다. 그 결과가 어떨까? 아쉽게도 몸무게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팽팽하던 느낌은 덜하다. 또 월요일마다 들던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주말이면 불규칙하던 식습관이 바로잡히면서 변비가 심하지 않다. 비록 3일뿐이지만 '해독'하는 시간이 나만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디톡스 라이프, 뭐 별거겠냐? 이렇게 시작했으니 40대에는 조금 가볍게 살 수 있길 희망해본다. **LD**

ITEM 이달의 추천 제품

1 **바이탈뷰티 명작수** 삼신의 컨디션이 나빠지기 쉬운 봄철, 건강한 활기를 되찾아줄 프리미엄 홍삼 앰플. 20g×50앰플, 26만원.



2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크림** 미세먼지, 자외선, 건조한 공기 등으로 피부가 민감해지기 쉬운 봄철 피부를 지켜줄 진정 크림. 40ml, 3만5천원.



3 **설화수 2020 스프링 리미티드 퍼펙팅 쿠션** 세계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앙투아네트 푸아송과 협업해 디자인한 리미티드 패지키를 입은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15g×2, 6만5천원



4 **설화수 2020 스프링 리미티드 에센셜 립세럼 스틱** 건조해지기 쉬운 입술을 촉촉하고 매끈하게 가꿔주는 에센셜 립 세럼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3g, 4만원.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EDITOR'S PICK!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브랜드별 뷰티 신제품.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CHOI HYANG JIN

5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_오리지널** 전설의 수분 앰플이 강력하게 돌아왔다. 단독으로 쓰거나 스킨케어 혹은 메이크업 제품에 섞어 사용할 수 있다. 5ml×12, 11만원.



6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랙트 에센스** 단일 성분 화장품의 선두 주자이자 베스트셀러인 빈티지 에센스를 대용량으로 출시했다. 240ml, 24만5천원.



7 **헤라 레인보우 일루전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밤** 한정판 컬러로 출시되는 레인보우 일루전 컬렉션의 립 아이템. 투명하고 영롱한 입술로 연출할 수 있다. 3.5g, 3만5천원.



8 **헤라 레인보우 일루전 멀티 팔레트** 스프링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하는 멀티메이크업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화사한 스프링 룩을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으니 이번 봄 메이크업을 이 팔레트에 맡겨보자. 10구 10g, 8만원.

9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435 팜파스** 한정판 컬러로 출시돼 품질 대란을 일으켰던 팜파스가 정식으로 재발매되었다. 5g, 3만5천원.

GOUTAL PARIS

AUTHOR OF PERFUMES



NIGHT BIRDS COLLECTION

HERA

GLOW LASTING



#SKINLIKEME 타고난 듯한 스킨 글로우
#24HGLOWLASTING 24시간 윤기 지속
#RADIANTCOVER 촉촉한 광채 커버리지

GO WITH THE GLOW,
지우기 싫을 정도로 예쁜 윤기

NEW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 25 / PA++

